



하루에 하나

2026.6.15

JUN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달러 환율

1,518.30원 (-10.60원)

KOSPI

8,123.62 (+359.67, +4.63%)

KOSDAQ

1,029.05 (+32.12, +3.22%)

국고채 10년 금리

4.195 (-0.105%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화수분전략	연준 동결 이후: 장단기금리차 상승의 승자는 누구일까 [이재만]
김경환의 China Weekly	중국 주식시장의 강점 [김경환]
하나채권	[6월 ECB] 인상 사이클 시작. 그러나 한계는 명확 [박준우]
하나로 보는 글로벌 통화정책	[6월] '중동'이란 안개는 걷히기 시작했지만.. [허성우]

기업분석

신한지주	CET 1 비율 상승은 RWA 재배분을 통해 ROE와 주주환원을 개선에 기여 [최정욱]
대덕전자	레벨이 달라진다 [김민경]
우듬지팜	IPO 주관사 업데이트: 과일 토마토 메이커 [박찬술]
블루앰텍	IPO 주관사 업데이트: 원내 의약품 유통의 실리콘투 [김다혜]

Weekly

은행	업종내 소외주들의 반란 [최정욱]
철강금속	중국 주요 철강사 7월 가격 동결 발표 [박성봉]
반도체 및 소부장	의심이 필요 없는 메모리 투자 전략 [김록호]
에너지/화학	호르무즈 개방은 매수의 근거 [윤재성]
음식료/담배	오리온 공장 투어 후기 + 주요 기관 지분을 변동 [심은주]
2차전지	Co-location에서 Off-grid/On-site 발전으로 [김현수]

글로벌리서치

Tech&Stock Weekly	우주 데이터센터를 위한 우주 태양광 [김재임, 김시현]
Hana China Weekly	미 국방부, 중국 첨단 민영 기업으로 규제 확대 [백승혜]
HANA US Weekly	엔비디아 주주 필독: 젠슨 황이 한국에 온 이유 [강재규]
미국 건설	미국 집 한채에서 규제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하민호]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삼성SDI, 대한항공, 대덕전자, HD건설기계, 오리온, 한국콜마, SGC에너지, 테스, 에치에프알

2026년 6월 15일 | Global Asset Research

Equity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화수분전략

연준 동결 이후: 장단기금리차 상승의 승자는 누구일까

6/18일 FOMC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기준금리는 동결 가능성이 높고, 케빈 워시 의장 기자회견 내용이나 점도표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지난 3월 점도표에서 2026년 기준금리 중간값은 3.4%로 변화가 없었지만, Central Tendency의 하단이 12월 2.9%(상단 3.6%)에서 3월 3.1%(상단 3.6%)로 상향 조정되면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됐다.

현재 생각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중 하나는 기준금리 동결과 장단기금리차(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 스프레드)의 상승 반전이다. 우선 현재 미국 2년물과 기준금리(하단)차는 58bp로 2023년 이후 최고치로 이미 2년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어 이번 기준금리 동결 시 단기금리 하락 전환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종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4월 말 이후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3%에서 4.5%까지 상승했지만, BEI(기대인플레이션)는 2.4%에서 2.3%로 하락했고, 6월 미시건대 단기와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은 4.6%(5월 4.8%)와 3.4%(3.9%)로 전월 대비 동반 하락했다.

최근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한 이유는 성장률을 반영하는 실질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5월 미국 ISM제조업지수 54.0p로 전월(52.7p) 대비 상승 반전과 선행지표인 재고순환지수는 6.9p(전월 5.1p)로 상승 전환하며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다.

미국의 성장 기대가 높아져 10년물 국채금리는 기대인플레이션 하락해도 2년물보다 하락 속도는 더딜 수 있다. 2년물 국채금리 하락을 기반으로 한 장단기금리차 상승 반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국면이다.

향후 예상되는 금리 변화를 바탕으로 주식시장의 접근 전략을 제시한다면, ① 2016년 이후 기준금리 동결 국면에서 2년물 국채금리 하락 기반으로 장단기금리차 상승 시 월 평균 주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업종은 관심 대상이다. 해당 국면에서 S&P500지수와 코스피 월 평균 주가 수익률은 1.9%와 2.2%였다.

② 기존 단기 국채금리의 빠른 상승으로 인해 연초 이후 밸류에이션(PER)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졌던 업종들의 주가 상승 가능성은 높다. 2016년 이후 미국 2년물 국채금리 하락 기반의 장단기금리차 상승 시 S&P500지수와 코스피 PER은 전월 대비 평균 1.6%와 1.0% 상승했다.

③ 장단기금리차의 상승은 성장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PER 낙폭 회복의 기반은 이익 증가율이 되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PER 하락률은 크고, 이익 증가율 전망치는 높아야 한다.

과거 경험과 최근 PER 하락 정도 그리고 2026~27년 이익 증가율 전망치를 고려해 우선 S&P500지수 내 업종을 선별하면, 반도체, 소프트웨어, 미디어, 하드웨어, 제약/바이오다. 한편 코스피 내 업종을 선별하면, 반도체, 하드웨어, 조선, 기계, 제약/바이오, 소프트웨어다(업종 내 종목 선별은 본문 도표 15와 16 참고).



Strategist 이재만 duke7594@hanafn.com
RA 손일수 ilsooson@hanafn.com

김경환의 China Weekly

HANA Global Weekly | 2026.06.15



중국/신흥국 투자전략 김경환 khstyle11@hanafn.com

중국 분석 김성은 seongeunk@hanafn.com

중국 주식시장의 강점

- 구조적인 수출 호황과 공급망 재평가가 2026년 중국 주식시장의 최대 강점** : 펀더멘털 측면에서 역대 중국 주식시장의 강세장은 수출 경기의 구조적인 호황 혹은 부동산 경기 상승이 필수 조건이었다. 중국 수출과 부동산의 동반 강세가 반복된 2000-2015년 구간은 주식시장 강세에도 불구하고 긴축 정책이 수반되며 강세장 기간이 단축되었으며, 통상 수출과 제조업 경기가 대외 사이클 호황 혹은 산업 고도화(ICT/전기차 등)를 결과적으로 반영한 시기에 중국 주식시장의 상승세는 더 탄력적이고 길게 유지되었다.
- 우리는 하반기 전망에서 중국 성장의 특징을 '수출과 제조업은 구조적인 호황 유지-내수는 구조적인 침체 탈출'로 평가했으며, 2027년까지 주식시장은 시총과 이익 구조의 극적인 변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과 산업 고도화 성과(테크/자본재/AI/에너지)를 계속 반영하며 강세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는 상반기 중국 수출의 구조적인 호황이 당초 예상을 상회하고 있으며, 연간 수출 전망치의 상향조정(연간 +12% 이상)은 물론 하반기 전반적인 실적과 주식시장 영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한다.
- 상반기 중국 수출 고성장이 과거 대비 더 특별한 이유** : 상반기 AI 투자 확산과 글로벌 CapEx 사이클 기반의 아시아 공급망 호황(한국/대만/베트남/중국 등)은 공통된 부분이지만, 중국 수출 구조와 자체 공급망 관점에서 보면 구조적인 경쟁력과 특별한 변화가 확인된다. 참고로 달러 기준 5월 수출액(YoY+19.4%)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1-5월 누적 수출은 YoY+15.5% 증가를 기록하며 상반기 실질GDP 전망(4.9%-5.1%)과 내수 성장률 전망(2.5%-3.0%)를 계속 압도하고 있다. 더 중요한 점은 중국 수출이 2025년 이후 지역 다변화(非미국 시장 분포)와 품목 고도화(중간재/자본재/소재 비중)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더 특별한 변화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2023년 리오프닝 이후 3년 만에 수출 단가가 상승하고 있다. 중국 수출 가격은 선형지표인 생산자물가의 상승에 따라 4월 YoY+5%(3월 대비 +6.2%p)로 급등했으며 5월에도 YoY+9%대로 추정된다. 중국 수출은 2023년 '박리다매(P 하락/Q 상승)' 구간이 종료되고 2026년 'P 상승과 Q 안정'으로 전환되었다. 상반기 수출 가격 상승이 AI 직접 연계 ICT 품목(전체 수출의 20% 추정), 스마트폰, 자본재(전력기기/기계장비), 희토류, 비철금속, 비료, 정제유 등 다수 분야로 확산하고 있으며, 소비자 중심의 경공업 품목(전체 15% 추정)의 가격 하락폭은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하반기 중국 수출액과 관련 업종 마진율의 동반 회복을 유도할 것이다. **둘째**, 수출 지역 다변화는 구조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2/4분기 이후 미국향 수출도 다시 반등하고 있다. 수출 성장 기여도 측면에서 2025년 이후 EU, 아세안, 중동, 아프리카 확산이 유지되고 있고, 2026년에는 재수출 증가에 따른 역내 수출(홍콩-대만-한국-베트남)과 미국향 수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4분기 이후 미국 수출은 낮은 베이스와 실패세를 하락(현재 22%대) 및 미중 합의 효과 등에 따라 증가율과 전체 비중이 반등하고 있다. 하반기는 비민감 품목 관련 미중 상호 관세의 인하 효과, 고유가 충격에 따른 아세안 등 공급망 대체 효과 등이 추가로 기대된다.
- 중국 주식시장 영향과 리스크 요인** : 우리는 2026년 중국 수출과 제조업 호황을 심천 ChiNex지수(최선호)와 상해 Star50지수가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는 의견을 계속 유지한다. 하반기까지 중국 본토의 두 지수는 실적과 수급 우위를 보일 것이며, 구체적으로 ①아시아 주요 수출국 중에서 범 산업재 분야(IT/반도체/자본재/소재/유틸리티)의 업종 노출도가 대만(90%)과 한국(78%) 다음으로 높다는 점(중국 54%), ②특정 기술 분야 병목을 제외하면 주요 자본재 수출 분야의 전방위 밸류체인을 구축했다는 점, ③3/4분기부터 주요 수출 경쟁국 대비 에너지와 전력 분야 우위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 ④2026년 중국 수출에서 고부가가치 품목의 MS 및 수출단가 상승세가 유지된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 다만, 중국 수출 호황으로 인한 일부 리스크 요인도 3/4분기부터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는 ①통상 수출 호황 시기 중국 내수 부양책 강도와 팀포가 약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상반기 약화된 재정 집행이 하반기 회복할지 여부(내수 경기 견인 필요), ②리오프닝 이후 최초로 중국 수출 단가(PPI 상승률) 상승과 미국 물가 연동성 회복 가능성, ③2026년 위안화 강세 요인의 중첩(비축 달러 환전/무역수지 급증)과 내부 정책 선택 변수 등으로 판단된다.

2026년 6월 12일 | Global Macro Strategy

Fixed Income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하나채권

[6월 ECB] 인상 사이클 시작. 그러나 한계는 명확

- 기준금리 25bp 인상. 보험성 인상이 아니라 당장 필요한 결정이었음을 강조
- 다만 추가 인상 시점에는 신중한 입장. 9월 1회 추가 인상 전망
- 성장률 전망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독일 국채 금리는 상승 압력이 제한적일 것

ECB는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를 만장일치로 25bp 인상했다(DFR 2.25%) [도표 1]. 인플레이션 전망을 올해 2.6%, 내년 2.3%로 3월 전망 대비 각 0.4%p, 0.3%p 상향했다 [도표 3]. 근원 인플레이션의 경우 2028년을 2.2%로 제시하면서 하락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성장률은 올해 0.8%, 내년 1.2%로 3월 전망 대비 0.1%p 하향 조정했다.

라가르드는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와 성장률 하방 리스크가 동시에 커졌으나, 중동 전쟁등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은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Milder, Adverse, Severe 시나리오에서도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이 각 3.0%, 4.1%, 5.8%로 목표치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험성' 인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험성이라는 단어는 추후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오를 가능성을 대비해 인상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러나 라가르드는 에너지 충격에도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다소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했다.

그러나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하지 않았다. 오늘 인상으로 통화정책이 좋은 위치에 놓였고, 향후 meeting-by-meeting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채권은 7월 동결 후 9월 추가 인상을 전망한다. 중앙은행이 물가를 안정시킬 것이라는 신뢰도를 지키기 위해 인상을 시작했으나, 가파른 인상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 인상 사이클과 비교할 때 (1)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있으며, (2) 2차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며, (3) 성장률 하방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다.

(1) 2022년과 비교하면 유로존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천연가스 가격은 안정적이다 [도표 4]. 미국-이란 종전 기대로 유가도 안정되고 있다. (2) 노동시장 수급이 상당히 느슨하다 [도표 5]. 그 결과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이는 2차 파급 효과 확산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3) 성장 측면에서는 서베이 지표들 중심으로 둔화 압력이 커지고 있고, 노동시장도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특히 미국, 한국과 비교할 때 기업심리 지수 하락이 두드러진다 [도표 6].

2차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고 성장 전망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시장은 ECB의 인상 사이클에 한계가 명확함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에도 장기금리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한/미-독일 10년 금리 스프레드는 확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채권 Strategist 박준우, CFA
junoopark@hanafn.com

2026년 6월 15일 | Global Fixed Income

Fixed Income

Compliance Notice

본 조서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하나로 보는 글로벌 통화정책

[6월] '중동'이란 안개는 걷히기 시작했지만..

- 미국 FOMC: 동결 전망. 성명서 문구 수정해 통화정책 관련해 양방향 가능성 열어둘 것
- 일본 BOJ: 25bp 인상 전망. 4월보다 매파적. 경제 하방보다 물가 상방 리스크에 초점
- 브라질 BCB: 25bp 인하 전망. 단, 동결 소수의견 개진 가능성. 듀레이션 축소 전략 권고

'하나로 보는 글로벌 통화정책'은 큰 틀에서의 채권시장 동향과 주요 이슈를 다루며, 국가별 통화정책회의의 리뷰와 프리뷰를 작성한 자료입니다. (미국, 일본, 브라질)

월드컵 개막에 맞춰 트럼프도 전쟁을 끝내고 싶은 모양새다. 브렌트유(Brent)가 배럴당 \$80 대로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주요국 금리도 상승폭을 일부 축소했다. 다만, 중동 전쟁 이후로 보면 여전히 주요국 간 금리 차별화 장세는 이어지고 있다. 성장 전망의 차이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6/10까지 반도체 수출이 200% 넘게 급증하며 성장을 호조를 이끌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성장을 둔화 시그널은 포착되고 있지 않다. 반면, 독일을 포함한 ECB와 호주의 경우 물가 안정을 위해 인상을 단행했음에도 국제 금리는 안정세를 찾고 있다. 성장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Aggregate 채권 지수 수익률은 연초 이후 +0.34%로 플러스(+) 전환했다. 미 10년물 금리는 6/5 5월 비농업 고용 호조를 반영해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4.5%를 4거래일 연속 상회하다, 6/11 유가 하락에 힘입어 4.5%를 재차 하회했다. 그럼에도 큰 틀에서 보면 중동 이슈가 불거진 이후 금리 하단은 꾸준히 높아가는 모습이다.

유가가 안정된다면 금리도 당분간 숨고르기 국면이 이어질 수 있으나, 생산자물가(PPI) 예상치 상회 등 물가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견조한 성장률까지 감안하면 유의미한 금리 하락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판단한다. 미국 10년 단기 하단 4.4% 전망을 유지한다.

한국시간으로 6/16 일본 BOJ, 6/18 미국 FOMC와 브라질 BCB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1) 일본의 경우 6월 25bp 인상 전망. 경제 하방보다 물가 상방 리스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 2) 미국의 경우 6월 동결 전망. 추가 인하를 시사하는 문구를 삭제하면서 양방향 가능성을 열어둘 것으로 예상, 3) 브라질의 경우 6월 25bp 인하 전망. 단, 동결 소수의견 개진 가능성. 달러 표시 채권 → 단기 헤알화 표시 채권 순으로 선호

** 국가별 통화정책회의 리뷰와 프리뷰는 뒷장 참고



해외채권 Analyst 허성우
deanheo@hanafn.com

2026년 6월 15일 | 기업분석_Earnings Preview

BUY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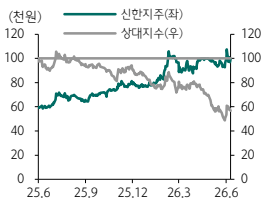
목표주가(12M) 135,000원(상향)
현재주가(6.12) 99,6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8,123.62
52주 최고/최저(원)	107,500/58,600
시가총액(십억원)	47,275.6
시가총액비중(%)	0.71
발행주식수(천주)	474,654.4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404.7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35.7
외국인지분율(%)	61.46
주요주주 지분율(%)	
국민연금공단	8.97
BlackRock Fund Advisors 외 13 인	6.12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N/A	N/A
영업이익(십억원)	7,616	8,066
순이익(십억원)	5,648	5,968
EPS(원)	11,664	12,341
BPS(원)	129,363	135,570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총영업이익	14,674	15,439	16,528	17,335
세전이익	6,029	6,929	7,459	7,842
지배순이익	4,450	4,972	5,504	5,787
EPS	8,202	9,541	10,733	11,284
(증감율)	4.5	16.3	12.5	5.1
수정BPS	110,144	119,096	131,808	144,144
DPS	2,160	2,590	2,960	3,280
PER	5.8	8.1	9.3	8.8
PBR	0.43	0.65	0.76	0.69
ROE	8.3	8.9	9.3	8.9
ROA	0.6	0.7	0.7	0.6
배당수익률	4.5	3.4	3.0	3.3



Analyst 최정연,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신한지주 (055550)**CET 1 비율 상승은 RWA 재배분을 통해 ROE와 주주환원을 개선에 기여**

2분기 추정 순익 1.72조원으로 컨센서스 상회 예상. 연간 순익 증가 폭도 가장 클 듯
신한지주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135,000원으로 상향한다. 목표가 상향 이유는 기대치를 상회할 2분기 순익 전망과 향후 이익추정치 상향 등으로 지속가능 ROE를 소폭 상향적용했기 때문이다. 2분기 추정 순익은 약 1.72조원으로 YoY 11.0% 증가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1) 2분기 은행 대출성장률은 0.5%로 1분기보다 다소 낮아지고, 은행 NIM도 QoQ 1bp 상승에 그쳐 순이자이익은 소폭 증가하겠지만 2) 증권 수탁수수료 외에도 펀드/신탁수수료가 크게 증가하면서 그룹 순수수료이익이 1조원에 육박해 QoQ 5%, YoY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3) 2분기 그룹 대손비용은 연체를 상승에 따른 경상 대손비용 증가 및 기업 신용위험 재평가 영향 등으로 소폭 늘어났지만 5,500억 원대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 동사도 홍콩 ELS 과징금 감경에 따라 환입이 발생하면서 영업외항목에서 약 700~800억원 내외의 일회성 이익이 인식될 전망(ELS 관련 기존 실적리액은 약 1,530억원)이다. 올해 신한지주 연간 추정 순익은 약 5.5조원으로 10.7% 증가해 연간 증익 폭이 은행 중 가장 클 것으로 기대한다

2분기 CET 1 비율 13.4% 기대. 손실사건 RWA 배제 승인시 13.5%를 웃돌 전망

1분기 실적 발표 당시 그룹 CET 1 비율을 13.19%로 발표했지만 구조적 외환포지션 해외점 포이익잉여금 확대 영향 +11bp가 소급 적용되면서 최종 수치는 13.30%로 수정되었다. 약 8,500억원 내외의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에도 불구하고 2분기 중 RWA 증가율이 낮은 데다 손익이 크게 늘면서 2분기 CET 1 비율은 QoQ 10bp 상승해 13.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여기에 손실사건 운영리스크 적용 기간 축소에 따른 RWA 배제 영향까지 감안하면 13.55%로 13.5%를 웃돌 가능성이 높다. 운영리스크 적용기간 축소 영향은 감독원 승인 여부에 따라 2분기에 반영될지 이후에 반영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시기의 문제라는 점에서 2~3분기 CET1 비율은 회사측 기업가치제고 계획상의 관리구간인 13.0~13.4%를 크게 상회할 공산이 크다. 목표 대비 양호한 CET 1 비율은 비은행업권에 대한 RWA 재배분을 통해 그룹 ROE를 끌어올리는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ROE 개선을 통한 충주주환원을 확대라는 동사의 밸류업 전략을 뒷받침하는 지렛대로 작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수급 우려 약화로 이제 주가는 펀더멘털을 온전히 반영 예상. 비은행 수익력 개선 기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2월말까지 끊임없이 출회되던 기탁법인 매도세가 어느정도 일단락된 모습이다. 2019년 발행한 전환우선주 보통주 전환분 매물로 추정되는데 수급상 우려 요인이 약화되었다는 점에서 이제 주가는 펀더멘털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을 전망이다. 비은행업권의 수익력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배당도 매년 10% 이상씩 증가할 뿐만 아니라 충주주환원율도 60%를 향해 계속 상향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2026년 6월 15일 | 기업분석_Earnings Preview

BUY (유지)

목표주가(12M) 250,000원(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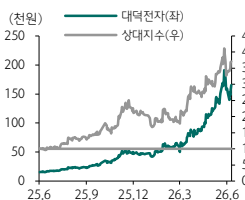
현재주가(6.12) 165,2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8,123.62
52주 최고/최저(원)	190,900/15,590
시가총액(십억원)	8,163.7
시가총액비중(%)	0.12
발행주식수(천주)	49,416.9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319.3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49.2
외국인지분율(%)	14.48
주요주주 지분율(%)	
대덕 외 5인	30.82
국민연금공단	13.38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516.3	1,817.1
영업이익(십억원)	237.3	332.3
순이익(십억원)	196.9	271.2
EPS(원)	3,822	5,265
BPS(원)	20,788	25,543

Stock Price**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892.1	1,065.3	1,547.7	1,791.2
영업이익	11.3	49.1	255.2	339.9
세전이익	30.2	53.4	276.6	354.8
순이익	23.8	47.6	219.1	283.8
EPS	461	924	4,434	5,743
증감율	(6.49)	100.43	379.87	29.52
PER	33.62	50.97	37.26	28.77
PBR	0.91	2.70	7.79	6.30
EV/EBITDA	4.49	14.52	22.60	17.52
ROE	2.73	5.37	22.03	23.24
BPS	16,996	17,419	21,204	26,213
DPS	400	500	500	500



Analyst 김민경 minkyung.kim@hanafn.com

대덕전자 (353200)

레벨이 달라진다

2Q26 Preview: 평가 인상과 믹스 개선 효과 본격화

26년 2분기 매출 3,726억원(YoY +52%, QoQ +8%), 영업이익 624억원(YoY +3,236%, QoQ +22%, OPM 16.7%)을 기록할 전망이다. 2분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기존 추정치 대비 각각 3%, 8% 상향 조정했는데 전 제품에 대한 평가 상승 및 믹스 개선 효과가 반영된 영향이다. FCCSP는 레이다 센서, ADAS 등 전장용 반도체의 강한 수요를 기반으로 스펙 상향에 따른 믹스 개선 효과가 반영되며 전 제품군 평가인상 폭이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메모리 패키지기판, FCBGA, MLB 또한 원재료비 상승을 반영해 평가 인상이 이루어졌다. 패키지 기판 및 MLB 공급부족 심화로 공급자 우위 시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믹스 개선이 가속화되고 있어 26년 연간 매출액 및 영업이익 또한 이전 추정치 대비 3%, 6% 상향조정했다.

대규모 증설로 중장기 성장 가시성 확보

대덕전자는 지난 5월 2,130억원 규모의 시설 투자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금액은 메모리 패키지 기판 및 FCCSP 신규 생산시설에 대한 인프라 투자에 투입될 예정이다. 신규 생산시설은 8층 건물 1개동 규모로 사무실 면적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기존 생산시설(4층 건물 2개동) 대비 생산능력이 약 80%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신규 생산시설의 가동은 27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FCBGA의 경우 보류했던 800억원 규모의 투자가 대면적 기판 양산을 위한 생산설비 업그레이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인프라 투자는 별도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MLB는 생산능력 확대가 순조롭게 마무리 되었으며 점진적으로 램프업중이다. 상반기에는 네트워크, 위성통신, 방산 어플리케이션 중심으로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표주가 25만원으로 상향

대덕전자 목표주가를 25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목표주가는 27년 예상 EPS 5,743원에 Target P/E 42.8배를 적용했으며 Target P/E는 글로벌 기판 업체(Ibiden, Unimicron, 삼성전기, 코리아서킷)들의 평균 멀티플이다. [1]패키지기판 공급자 우위 환경이 강화되며 평가 인상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2]대규모 증설로 중장기 성장 가시성이 확보되는 동시에 고객사 선수금 수령을 통해 하방 리스크는 축소되고 있다. [3]향후 공급부족 심화에 따른 추가적인 평가 상승 및 수율 개선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 여력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2026년 06월 15일 | 기업분석_스몰캡_Report

Not Ra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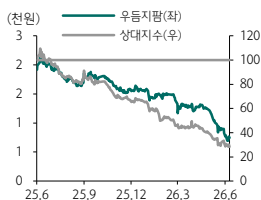
현재주가(6.12) 746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1,029.05
52주 최고/최저(원)	2,100/695
시가총액(십억원)	34.3
시가총액비중(%)	0.01
발행주식수(천주)	45,932.5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33.4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0.4
외국인지분율(%)	4.23
주요주주 지분율(%)	
김호연 외 5인	39.01
한국증권금융	5.26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N/A	N/A
영업이익(십억원)	N/A	N/A
순이익(십억원)	N/A	N/A
EPS(원)	N/A	N/A
BPS(원)	N/A	N/A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45	56	63	59
영업이익	4	3	4	0
세전이익	4	2	4	(4)
순이익	4	1	3	(3)
EPS	91	33	73	(66)
증감율	(26.6)	(63.7)	121.2	적전
PER	0.0	82.0	19.8	(23.4)
PBR	0.0	3.2	1.6	1.8
EV/EBITDA	0.0	20.7	11.3	23.7
ROE	14.4	4.0	8.0	(7.6)
BPS	629	837	912	848
DPS	0	0	0	0



Analyst 박찬솔 chansolpark@hanafn.com
RA 윤채리 yooncherry@hanafn.com

우듬지팜 (403490)

IPO 주관사 업데이트: 과일 토마토 메이커

스테비아 카테고리 개척자

우듬지팜은 2019년 스테비아 토마토 스마트 양산에 성공하면서 '토망고' 브랜드로 성장한 업체다. 현재 스마트팜의 설계시공, 재배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스테비아 토마토 가공 및 유통을 사업의 핵심축으로 키웠다. 재배/생산/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기업 역량으로 내재화했으며, 이런 노하우를 스마트팜 관련 기술자문과 컨설팅에도 활용하고 있다. 직접 재배한 작물과 계약재배 농가 등으로부터 기타 작물도 매입해 유통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여러 작물들에 스테비아 기술을 적용한 스테비아 농산물 시장을 키우겠다는 계획을 보유하고 있다.

최종 판매처(유통채널)은 대형마트/편의점 등 오프라인 채널과, 쿠팡 로켓프레시/CPLB(쿠팡 PB)/홈쇼핑/스마트스토어/11번가 등 온라인 채널이다. 토마토 외에도 밤/콜라비/주스/샐러드를 판매 중이지만, 스테비아 토마토 매출액 비중이 약 80%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토망고(Tomango) 브랜드

토망고는 '망고처럼 달콤한 토마토'라는 슬로건으로 출시한 스테비아 카테고리 브랜드다. 천연 감미료 스테비오사이드를 허브의 일종 스테비아에서 추출해 토마토에 주입하는 기술로 국내 최초 양산에 성공했으며, 특허권(제 10-2188356호)으로 등록했다. 현재도 토마토의 당도를 추가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들과 주입된 스테비오사이드 유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스테비아는 몸에서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어 칼로리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식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 토망고는 유통채널별로, '꿀맛토', '스윗마토', '곰곰달콤한스테비아토마토', '하루토망고', '야미토망고' 등 상표권을 활용해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다.

투자의견 및 주가 전망

3Q25부터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원물 시장의 가격 변동성, 유통 시장의 경쟁 심화, 신선식품의 재고관리, 신규 투자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2H26 유럽형 채소 등 고부가가치 품목 생산 확대와, 27년 충남 서산 농업바이오단지 온실 사업으로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흑자 전환 시점을 가늠하기에는 원가 전망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향후 투자 포인트로 스테비아 작물(밤, 콜라비, 키위, 고구마, 감자) 카테고리의 속도감 있는 국내 판매량 확대, 국산 스테비아 토마토의 빠른 해외 확장 등에 주목한다. 또 영업이익의 턴어라운드 보다는 영업외손익 구조를 고려할 때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 더 중요한 주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2026년 06월 15일 | 기업분석_스몰캡_Report

Not Ra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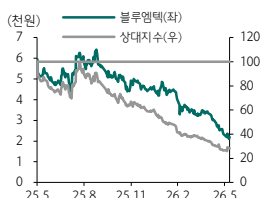
현재주가(06.12) 2,45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1,029.05
52주 최고/최저(원)	6,420/2,100
시가총액(십억원)	82.9
시가총액비중(%)	0.01
발행주식수(천주)	33,846.5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15.8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0.9
외국인지분율(%)	2.56
주요주주 지분율(%)	
연재량 외 7인	26.32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N/A	N/A
영업이익(십억원)	N/A	N/A
순이익(십억원)	N/A	N/A
EPS(원)	N/A	N/A
BPS(원)	N/A	N/A

Stock Price**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77	114	133	186
영업이익	1	1	(6)	(2)
세전이익	(14)	(2)	(4)	(4)
순이익	(14)	(2)	(4)	(4)
EPS	(623)	(87)	(128)	(133)
증감율	적지	적지	적지	적지
PER	0.0	(104.1)	(30.9)	(33.2)
PBR	0.0	6.4	2.8	3.3
EV/EBITDA	0.0	142.6	0.0	345.6
ROE	(1,216.5)	(5.2)	(8.8)	(9.8)
BPS	48	1,421	1,425	1,344
DPS	0	0	0	0



Analyst 김다혜 kim.dahae@hanafn.com

블루엠텍 (439580)**IPO 주관사 업데이트: 원내 의약품 유통의 실리콘투****국내 1위 병의원 전문의약품 이커머스 플랫폼 블루팜코리아**

블루엠텍은 국내 점유율 1위 전문의약품 이커머스 플랫폼 블루팜코리아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2023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블루엠텍의 의약품 이커머스 플랫폼 블루팜코리아는 2018년 런칭하여 1Q26 기준 전국 의원급 요양기관 68.4%를 확보해 36,200명 회원을 두고 있다. 블루엠텍은 블루팜코리아를 통해 중소형 제약사에게 안정적인 물류 체계의 유통망을 제공하고, 네트워크가 약한 영세 병의원에게 다양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해 제약사와 의사가 각각 생산과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콜드체인 기반의 온라인 배송 시스템은 오프라인 영업사원 의존도가 높은 기존 제약사 영업과 달리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 외 지역 영세 병의원까지 커버가 가능하다. 제휴 제약사도 영업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병의원 고객에게 블루팜코리아 이용을 장려하고 영업조직을 효율화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유통 이원화 구조는 복잡한 유통체계를 압축해 판관비를 아끼고, 소비자 접점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유통사를 확보하는 최근 의료 분야 트렌드에 적합하다.

2026년은 GLP-1과 에스테틱으로 외형 확대

회사의 성장 동력은 2019년 백신 → 2021년 삭센다 → 2023년 NIP 백신 → 2025년 GLP-1 비만치료제 및 에스테틱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 24년 10월 위고비 출시 이후 블루엠텍의 판매 품목 수는 2024년 25,607개에서 1Q26 약 2,200개 증가한 27,809개에 도달했다. 비록 GLP-1 비만치료제 유통 마진은 낮으나, 강한 수요로 인해 제약사가 물량 제한을 두어 재고 확보가 어려운 영세 병의원들의 블루팜코리아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GLP-1 이용자는 급격한 감량에 의한 외관상의 부작용을 미용 기술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어, GLP-1 매출이 올라갈수록 수익성이 좋은 에스테틱 품목 매출로 연계될 수 있어 긍정적이다. 쿠팡,마켓컬리, 실리콘투 등의 케이스를 통해 증명되었듯 이커머스 플랫폼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시장에서 유의미한 점유율을 갖추면 외형이 고정비를 상쇄해 수익성이 향상된다. 블루엠텍 역시 GLP-1과 에스테틱으로 또다시 매출 규모가 커지며 마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매출액 2,000억원 돌파, 영업이익 BEP 목표

올해 블루엠텍의 매출은 2,000억원 돌파, 영업이익은 BEP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강한 수요가 보장되는 GLP-1 의약품으로 유입된 신규 회원이 서비스 편의성으로 인해 활성 사용자 자리잡아 이용률이 올라간다면 추후 MAU 트래픽과 데이터를 활용한 광고, 구인 구직 플랫폼, AI 기반의 부가 서비스 등을 통해 매출 다각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 코로나 시기의 단기적 수혜를 넘어, 올해 구조적 흑자전환을 통해 블루엠텍은 기존 의약품 유통, 영업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가능성을 증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종내 소외주들의 반란



은행 Weekly | 2026.6.15

Analyst 최정욱,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전주 은행주 초과하락. 주초 은행주는 이해할 수 없는 주가 흐름 나타났지만 이후 낙폭을 만회. 초과하락세를 되돌리기는 역부족

- 전주 은행주는 3.6% 하락해 KOSPI 하락률 0.5% 대비 다시 초과하락세를 시현했다. 월요일 미국 마이크론의 폭락에 따른 반도체주 급락으로 KOSPI가 8.3%나 하락하는 등 큰폭의 급락세로 출발한 가운데 은행주는 원/달러 환율 급락과 국제금리 상승 등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KOSPI보다 주가가 더 크게 하락하는 이해할 수 없는 흐름을 보였다. 이후 낙폭을 만회하기는 했지만 초과하락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주 후반에는 양호한 2분기 순익 전망에 힘입어 은행주도 KOSPI 반등세에 크게 뒤쳐지지 않았다
- 지난주에는 업종내에서도 그동안 주가가 크게 약했던 소외종목들이 큰폭 상승했다. 케이뱅크가 18.0% 상승했고, 삼성카드와 기업은행이 각각 12.0%와 5.6% 상승해 한주간 주가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케이뱅크의 경우 오버행 우려가 그동안 주가를 짓눌러 왔는데 IPO 이후 3개월 Lock up 기한이 해제된 이후에도 이렇다할 매물이 출회되지 않는 조짐을 보이자 저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급등했고, 삼성카드와 기업은행도 이렇다할 재료는 없는 가운데 장기간의 소외로 주가가 상당폭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5월 월중 NIM 2~3bp 상승 흐름. 2분기는 하나와 우리금융이 5bp와 3bp 상승하는 반면 iM과 BNK금융은 1~2bp 하락 전망

- 우리 필드테스트에 따르면 은행 5월 월중 NIM은 전월대비 약 2~3bp 상승하는 흐름을 예상한다. 다만 하나금융의 경우 일회성 요인 없이 5월 월중 NIM 상승 폭이 큰 것으로 추정되어 2분기 NIM 상승 폭이 상당히 커질 전망이다. 반면 iM금융은 주금공 출연요율 변경 영향으로 NIM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 4~5월 NIM 상황으로 유추한 2분기 은행 NIM은 QoQ 평균 약 2bp 상승이 예상되고,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은 각각 5bp와 3bp 상승하면서 상승 폭이 가장 클 것으로 기대한다. 양사는 금리감응자산·부채 구조상 금리 상승에 대한 민감도가 단기에 더 크고 빠르게 반영되는 점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1분기의 일회성 요인 소멸과 출연요율 변경 등의 요인이 있는 iM금융과 BNK금융은 2분기 중 NIM이 각각 -2bp와 -1bp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 전반적으로 NIM 흐름은 우리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으며 상반기 상승 후 하반기에는 고액 주담대 주택신용보증 출연요율 개편 영향으로 상승 폭이 둔화되는 양상을 예상한다. 다만 시중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하반기에도 NIM이 계속 상승할 여지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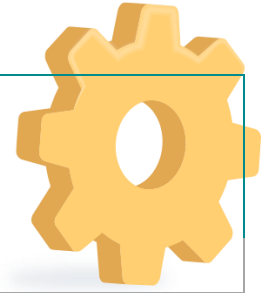
2분기 추정 순익 7.3조원으로 QoQ 10.3% 증가 예상. ELS 환입과 증권 이익기여 확대로 KB와 신한은 컨센서스 대폭 상회할 듯

- 5월 중 시중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은행들의 경우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채권관련손실이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1분기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2분기 평균 증권거래대금이 1분기보다도 30% 가량 더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수료이익은 1분기보다 더 증가했을 공산이 크다. 대출성장률이 높지는 않지만 NIM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 순이자이익도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고 2분기 기업 신용위험 재평가에도 불구하고 대손비용도 1분기 대비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은행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양호할 전망이다. 환율도 1분기말과 별 차이없는 수준이다
- 우리는 2분기 은행 전체 순익을 QoQ 10.3% 증가한 7.3조원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컨센서스인 6.8조원을 크게 상회한다. 특히 ELS 과징금 환입과 증권 이익기여도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KB금융과 신한지주 실적은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할 가능성 높다

주변주나 소외주로 다소나마 시장 관심이 확산되는 양상. 단기적으로는 주가 소외 폭 컸던 중소형은행의 Gap 메우기 지속 전망

- 지난주 내내 KOSPI 변동률이 매일 5%를 상회하는 등 롤러코스터 증시로 인해 피로감 확산 중이다. 다만 주도업종 일변도의 상승세에서 주변주나 소외주로 시장 관심이 다소나마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KB금융과 신한지주의 2분기 실적 모멘텀이 타행들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주가 소외 폭이 더 컸던 중소형종목들의 PBR Gap 메우기 성격 반등세가 좀더 이어질 것이라 단한다. 은행주에 대한 긍정적 시각은 계속 유지한다

금주 은행 주간 선호 종목으로 iM금융(매수/TP 24,500원)과 BNK금융(매수/TP 24,500원)을 제시



중국 주요 철강사 7월 가격 동결 발표

철강금속 Weekly | 2026.06.15

Analyst 박성봉 sbpark@hanafn.com

RA 김승규 sgkim@hanafn.com

주간 동향

철강금속 주요 지표 동향

- 국내 철강가격(원/톤)

열연 유통가: 96만원(WoW, 0.0%), 열연 수입유통가: 91만원(WoW, -1.1%), 철근 유통가: 89만원(WoW, -0.6%), 후판 유통가: 98만원(WoW, 0.0%)

- 해외 철강가격(달러/숏톤, 위안/톤) (1 Short Ton=907kg)*

미국 열연 유통가: 1,100달러(WoW, 0.0%), 중국 열연 유통가: 3,380위안(WoW, -0.5%), 중국 냉연 유통가: 3,822위안(WoW, -0.3%), 중국 철근 유통가: 3,296위안(WoW, -0.9%)

- 원재료 가격(달러/톤, 원/톤, 달러/톤)

중국 철광석 수입가: 101.8달러(WoW, -0.3%), 한국 스크랩가: 48.2만원(WoW, +0.6%), 호주 원료탄(FOB): 243달러(WoW, 0.0%)

- 주요 비철금속(LME) 및 귀금속 가격(달러/톤, 온스)

전기동: 13,603달러(WoW, -0.9%), 아연: 3,578달러(WoW, +1.9%), 연: 1,965달러(WoW, -1.4%), 니켈: 17,614달러(WoW, -4.1%), 금: 4,215달러(WoW, -2.8%), 은: 68.0달러(WoW, -1.6%)

- 국내 철강 유통가격: 비수기 수요 부진으로 판매 주춤하며 판매료 가격 보합, 철근도 상승세 마감하며 약보합

- 중국 철강 유통가격: 비수기 돌입에 따른 중국내 수요 둔화 우려와 재고 증가 등으로 4주 연속 하락

- 산업용 금속가격: 미달러 약세 불구, 미국-이란 긴장감 고조로 전반적으로 하락 마감

철강금속기업 추가 동향

- 국내 철강금속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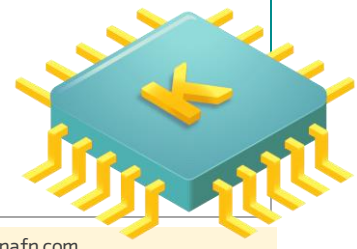
POSCO홀딩스: 37.7만원(-3.3%), 현대제철: 3.50만원(-2.7%), 세아베스틸지주: 4.78만원(-2.4%), 고려아연: 120.1만원(-5.1%)

- 해외 철강기업(자국 통화)

BAO STEEL: 6.02위안(+4.9%), A. MITTAL: 60.60유로(+2.3%), NSSMC: 551.6엔(+0.8%), TATA STEEL: 197.86루피(-4.3%), NUCOR: 266.35달러(+4.7%)

- 총평: 중국 철강 가격 하락으로 주요국 철강사들 추가 대부분 조정 반면, 미국과 유럽 철강사들 추가 강세 지속

의심이 필요 없는 메모리 투자 전략



반도체 및 소부장 Weekly | 2026.6.15

Analyst 김록호 roko.kim@hanafn.com

RA 김영규 kyg1019@hanafn.com

데이터 포인트 및 주간 리뷰: 글로벌 메모리 및 장비 업체들 추가 호조

- 6월 10일 영업일 평균 메모리 반도체 수출 금액은 전년동기대비 159% 증가한 11.2억 달러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DRAM은 308% 증가한 4.9억 달러, NAND는 151% 증가한 8,199만 달러를 달성했다. MCP와 SSD는 각각 81%, 91% 증가한 4.5억 달러, 1.1억 달러를 기록했다. 메모리 가격의 견조한 상승세가 지속되며, 전년동월대비 큰 폭의 증가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 코스피 지수는 0.5% 하락해 2주 연속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삼성전자는 2.0% 하락한 반면, SK하이닉스는 3.9% 상승했다. 지난 주와 상반되는 주가 움직임이 나왔다. 삼성전자는 파업 이슈가 불거진 이후부터 상대적인 주가 약세가 자주 시현되고 있다. 파업이 일단락된 이후로는 현재 메모리 업황 안에서 주가가 약할 이유는 찾기 어렵다. HBM4 수율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이는 새로운 뉴스는 아니다. 7월 초 잠정 실적을 발표 전까지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속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긍정적 주가 움직임을 기대한다.
- 코스닥 지수는 3.9% 상승하며 3주만에 반등했다. 코스닥 상승과 함께 하나증권 커버리지 종목들은 2주 연속 강한 주가 흐름이 이어졌다. 지난 주에 이어 장비 업체들 특히 전공정 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유독 양호했는데, 이는 글로벌 업체들과 유사한 흐름이다. 누차 언급했듯이 메모리 및 파운드리 업체들의 CAPEX 상향과 2027년 신규 Fab 오픈 등으로 외형 성장 가시성이 높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전망 및 전략: 바뀐 것은 없다. 비중확대 전략 유지

- 매크로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글로벌 반도체 서플라이체인들의 주가가 회복했다. Vera Rubin의 LPDDR 탑재량 절반 축소 관련 우려도 해소되는 모양새다. 이는 수요 둔화가 아닌 공급 과부족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국내외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 반등 속에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었다. 7월초 잠정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속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 주가 약세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투자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 상향 여력이 남아 있는 만큼 지속적인 비중확대 전략을 추천한다.
- 장비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하나증권이 커버하고 있는 전공정 장비 업체들 3종목 모두 최선호주로 추천중이다. 최근 한달 사이에 주가가 60% 이상 상승하며 목표주가에 근접한 상황이다. 글로벌 장비 업체들 역시 근 한달 사이에 30% 가까이 상승하며 멀티플이 레벨업되었기 때문에 이를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뿐만 아니라 실적 상향 여력도 상존한다. 국내 메모리 업체들의 투자 기조가 지속 상향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주가는 분명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신규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보유한 것을 유지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상대적으로 주가가 덜 오른 소재 및 소모품 업체들에 대한 중장기 접근도 고민해볼 전략이라고 판단한다.

표 1. 반도체 주요 종목 Valuation / Performance / 수급 동향

기업/지수	시가총액 (십억원)	종가/지수	주가 수익률			주간 순매수 (십억원)			PER (배)		PBR (배)	
			1W	1M	YTD	기관	외국인	개인	26F	27F	26F	27F
코스피	6,450,004	8,124	-0.5	6.3	92.8	82.9	-4,365.8	3,802.6	8.8	6.9	2.1	1.6
코스닥	575,895	1,029	2.7	-12.7	11.2	1,222.0	63.2	-1,154.2	32.2	22.9	3.7	3.3
삼성전자	1,885,425	322,500	-2.0	15.6	169.0	-2,010.3	-874.4	2,700.0	7.4	5.7	3.0	2.0
SK하이닉스	1,532,310	2,150,000	3.9	17.2	230.3	-1,361.3	-409.5	1,651.4	7.1	5.2	4.4	2.4
주성엔지니어링	10,737	231,000	10.0	48.1	733.9	103.8	-111.4	16.7	166.1	79.9	16.1	13.4
피에스케이	4,921	169,900	34.3	63.4	360.4	76.0	-80.3	-0.9	33.7	27.1	7.4	5.9
테스	3,527	182,200	30.9	67.8	309.0	88.3	-40.8	-50.5	38.8	30.9	7.0	5.8
피에스케이홀딩스	3,284	152,300	20.5	24.8	228.9	41.2	-13.0	-32.4	27.3	19.7	5.5	4.4
브이엠	2,403	97,000	42.7	61.7	221.2	152.9	-132.4	-24.6	30.0	22.1	9.7	6.7
파크시스템스	2,377	339,500	19.5	13.7	62.4	-16.6	12.6	3.9	45.4	36.2	7.8	6.7
씨애티엑스	1,145	118,600	10.0	-4.7	18.7	5.2	0.1	-5.3	17.9	14.1	5.0	3.5
원익머트리얼즈	600	47,600	15.8	-2.7	54.1	0.6	1.1	-1.7	10.2	7.4	1.0	0.9

자료: 하나증권

호르무즈 개방은 매수의 근거

에너지/화학 Weekly Monitor | 2026.06.15

Analyst 윤재성 js.yoon@hanafn.com

RA 김형준 do200508@hanafn.com



Weekly Issue: 호르무즈 개방은 매수의 근거

• 총평

- WTI 84.9\$(-6%), Dubai 83.2\$ (-9%), 정제마진 29.3\$(WoW +3.2\$). 유럽 디젤 선물 WoW -9%
- 납사 -5% vs. ECH -10%, TDI -8%, ABS/BPA/MDI -7%, SBR -5%
- Top Picks: OCI홀딩스, 금호석유화학, 효성티앤씨, 대한유화, S-Oil, 한화솔루션

• 호르무즈 개방은 매수의 근거

- 약 3개월 간, 정유/석유화학 추천종목이 없었던 이유: 1) 전쟁 장기화 시 유가 급등과 래깅 효과에 따른 단기 실적 호전보다 물가 및 금리 등 매크로 리스크가 더 크게 부각될 것으로 판단 2) 반면, 전쟁 종료 시에는 유가/제품 가격이 동반 하락하며 역래깅 효과가 발생해 단기 실적 둔화가 나타나고, 유가 상승 모멘텀을 구매한 주식 단기 매수자의 투매 가능성도 상존 3) 즉, 유가 급등/급락 모두 정유/석유화학 업체의 이익 가시성 측면에서 유리할 것 없는 상황이었음. 원래 소재업체의 추세적 상승은 꾸준한 원가/제품가 상승과 긍정적 래깅 효과 속에서만 발생하기 때문 4) 개별적으로는 정유사는 유가 상승에 따른 내수 가격 상한제와 내수 적자 관련 노이즈가 발목을 잡을 것으로 봤고 5) 석유화학은 중국 석탄화학 및 ECC가 유가 급등에 따른 반사수혜를 기반으로 물량을 쏟아 내며 NCC의 마진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음
- 현재 주가는 대부분 전쟁 직전보다 낮아져: 현재 한국 정유/석유화학 업체들은 중동 전쟁의 일부 반사수혜가 실제로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전쟁 직전 주가보다 하락(대한유화 -34%, 한화솔루션 -30%, 효성티앤씨 -21%, 롯데케미칼/금호석유 -20%, SK이노베이션-17%, 유니드 -16% 등). 이는 결국, 주식 수급적인 이슈 뿐 아니라 전쟁 장기화에 따른 매크로 리스크와 종전 시 역래깅 효과 발생에 따른 단기 실적 악화 등 발생 가능한 대부분의 리스크를 이미 충분히 반영한 상태라는 의미
- 종전 이후 펼쳐질 원유 시장의 구조적 변화: 호르무즈 사태를 계기로 이미 아시아 업체들은 중동산을 축소하고 비중동산 원유 도입을 확대한 상태. 이러한 다변화 움직임은 단기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거세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 특히, 한국은 미국(알래스카 포함), 브라질, 서아프리카, 캐나다, 호주, 베네수엘라 등을 중심으로 원유 공급처를 다변화한 상태. 참고로, 캐나다의 TMX 파이프라인은 완공 이후 처음으로 Full 가동(89만 b/d)에 도달했으며, 이달 들어서는 수송 수요가 파이프라인 수송 Capa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예상보다 빠른 성공에 추가 증설까지 제기되고 있음. UAE의 OPEC 탈퇴 및 브라질, 가이아나, 나미비아, 앙골라 등 심해시추 기반 Non-OPEC 중심의 중장기 원유 생산량 확대 가능성은 결국 중동 원유의 가격 결정력 약화 배경이 될 것. 즉, 아시아 업체 입장에서는 중동과의 원유 거래 시 과거와는 달리 매우 높은 협상력을 갖게 되는 셈
- 15년 간 지속된 WTI-Dubai 역전 현상이 끝날 것이다: 미국의 Shale Boom은 2027~30년 경 종료될 가능성이 높고, 중동 중심의 OPEC은 이제 협상력 열위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 이는 곧 지난 15년 간 지속된 WTI 대비 Dubai의 약세 국면이 종료되고, Dubai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는 '정상적인'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을 의미. 게다가, 사우디 OSP는 2015~17년 미국 Shale과의 경쟁 구간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는데, 이러한 국면 또한 재차 도래할 것. 즉, 아시아 정유/석유화학 업체의 구조적인 원가 우위 국면이 도래하면서 미국 업체 대비 상대적 밸류에이션 할인 또한 점차 사라지게 될 것으로 전망
- 2026년 하반기~2028년까지 정유/석유화학 Up-Cycle이 온다: 한국 업체에 유리한 원유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더해, 주요 제품군을 중심으로 증설이 제한된 사이클에 진입하고 전후 복구 수요까지 없어지면서 향후 2~3년에 걸쳐 정유/석유화학의 Up-Cycle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 단기적으로 주가는 전쟁 이전 레벨까지 무차별하게 반등할 것이라 판단하며, 전쟁 이전 수준까지 주가가 회복된 이후에는 펀더멘털에 기반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것. 펀더멘털이 전쟁 이전보다 확실히 좋아진 쪽은 정제마진(정유), 부타디엔 체인(NBL, SBR 등), 에폭시 체인(에폭시-BPA 등), 스판덱스, 유기실리콘 등
- 정유/석유화학 내 관심 종목: 1) 종전 이후에도 정제마진 강세는 지속될 것. 내수 가격 상한제 종료로 내수 적자 해소되며センチメント도 살아날 것. 사인PI의 가치가 부각될 S-Oil과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부각될 SK이노베이션 2) 천연고무/합성고무/부타디엔/에폭시 체인은 2027년 이후 증설이 제한된 사이클 진입. 관련업체 금호석유화학 3) 스판덱스 또한 증설 제한적. 관련업체 효성티앤씨 4) 유기실리콘 사이클 회복과 삼성물산의 지분가치가 부각될 KCC 5) 대한유화는 펀더멘털 대비 주가 낙폭 크다는 관점에서 단기 대응 가능 영역 진입 (이어서 계속)

오리온 공장 투어 후기 + 주요 기관 지분을 변동

음식료/담배 Weekly Comment | 2026.6.15

Analyst 심은주 yesej01@hanafn.com

RA 고찬결 cgko@hanafn.com

1. 주간 리뷰/전망 및 이슈 코멘트

1) 주간 리뷰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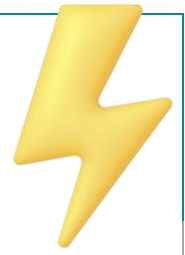
- 전주 음식료 업종지수는 코스피 대비 3.1%p 아웃퍼폼 시현, ETF 리밸런싱을 앞두고 주요 대형주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업종지수는 아웃퍼폼 시현함
- 전주 KT&G 주가는 외인 사랑에 힘입어 4.7% 상승함, 5% 이상 보유 중인 블랙락 및 캐피탈이 각각 46만주, 166만주를 추가 매입함. 외국인 지분율은 연초 43%에서 52%로 대폭 상승한 상황으로 은행 산업과 유사하게 배당 확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외인의 중장기 투자 자금이 다시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됨. 반면, 퍼스트이글은 5월 이후 2.7만주를 매도함. 2026년 KT&G 주당 배당금은 기존 하나증권 뷰인 7,200원을 상회한 7,5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퍼스트이글 매도 가격이 대략 18만원 내외일 것으로 추정됨. 이는 대략 시가배당수익률 4% 선으로 현 주가 수준과 유사.
- 한편, 최근 대장주 삼양식품이 단기 고점 대비 20% 조정 받으면서 가격 메리트가 높아짐. 주중 중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간 주가는 소폭 상승함.
- 올해 주당 배당금 확대가 기대되는 현대그린푸드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됨. 올해 약 110만주(발행주식수 대비 3.5%)를 매입 및 소각할 예정인 가운데 주당배당금도 최소 전년대비 10% 증액(2025년 총 배당금 220억원)할 것으로 사료. 2025년 주당배당금은 676원이었는데 올해는 740원 내외로 추정됨.
- 전주 상승: 현대그린푸드 +6.4%(배당 확대 기대감), KT&G +4.7%(배당 확대 기대감), 풀무원 +4.5%(해외 법인 적자 축소 기대감), 삼양식품 +2.2%(저가 매수 유입), 오리온 +2.2%(중국 호실적 기대감), 하이트진로 +1.4%(저가 매수 유입), 농심 +1.1%(저가 매수 유입) 등
- 전주 하락: 콜마비앤에이치 -7.0%(주가 모멘텀 부재), 노바렉스 -3.3%(차익 실현 매물 출하), 롯데칠성 -2.2%(국내 주류 및 음료 수요 부진), 동원산업 -1.5%(주가 모멘텀 부재) 등

2) 주간 이슈 코멘트

(1) 오리온 청주/진천 공장 투어 후기

- 지난주 오리온 청주 및 진천 공장 투어가 있었다. 청주 및 익산 공장은 오리온 국내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청주 공장만 보면 약 50% 수준인데 현재 가동률이 85%에 육박한다. 추가 증설을 통해 단기 소비자 수요 대응에는 문제는 없겠지만 선제적 생산 확충 위해 진천통합센터(생산+필름 공급+물류 거점) 건립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 진천통합센터의 부지 규모는 56,892평으로 총 투자규모는 4,600억원이다. 현재 공정률은 35% 수준으로 추산된다. Phase 1 완공시 4천억원(27년 7월 완공)/ 2 완공시 추가 4천억원/ 3 완공시 5천억원의 매출 증대가 가능한 규모이다. 결론적으로 Phase 3까지 건립시 총 1.5조원이 add on 되겠다.
- 수출 확대를 감안하여 할랄 인증 등 다양한 생산 설비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과 이외의 추가 카테고리 생산이 가능한 라인도 설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 진천통합센터가 내년 하반기 완공되면, 기존 수원 동천 물류센터 유동화도 가능해진다. 안산공장도 단기 유동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원 동천 물류센터는 최근 지가가 유의미하게 상승하면서 약 2천억원 유동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사측의 주주정책 강화 의지 감안시 중장기 배당 확대 가능성도 긍정적이다.

Co-location에서 Off-grid/On-site 발전으로



2차전지 Weekly **이배속** (이번주 배터리 속이야기) | **Overweight** | 2026.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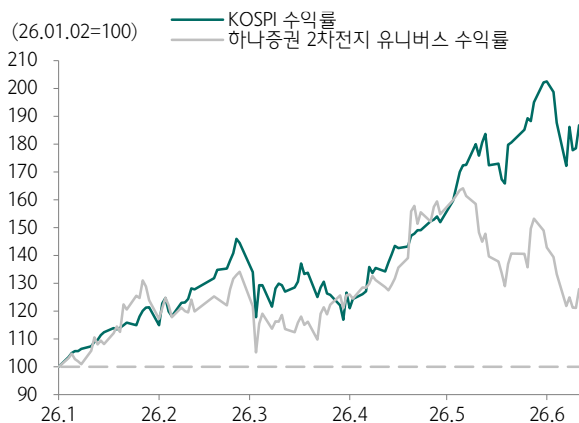
Analyst 김현수 hyunsoo@hanafn.com

RA 홍지원 jiwonhong@hanafn.com

데이터 포인트 해석 및 투자 전략 : 공격적 비중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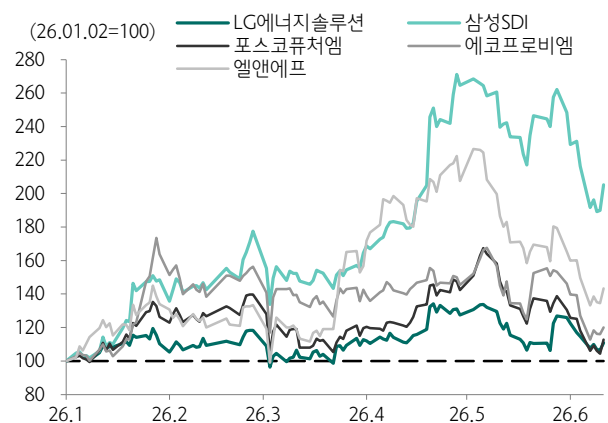
- 2024년 당시 미국 연방 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발전소 Co-location(발전소와 근접한 위치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여 송배전망 연결 시간을 최소화하려는 시도)을 제한하며, 자체 발전(Off-grid, On-site 발전) 시도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 지난 2026년 3월 미국 정부의 납세자보호서약(Taxpayer Protection Pledge, AI 데이터센터용 전력 인프라 구축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인허가 및 전력 공급을 지원하는 서약, 이를 통해 납세자들의 전기세 부담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납세자 보호 서약이라고 명명) 이후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전력 조달 방식이 Off-grid 기반 On-site 발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ESS 수주가 늘어나는 초입 단계에 들어섰다.
- 지난 2달간 LG에너지솔루션, Fluence Energy의 데이터센터용 ESS 수주가 발표되고, 배터리 JV 운영 이력 있는 기업들(GM, Ford)이 ESS 사업 진출을 가속화하는 것은 이러한 전력 조달 방식의 변화가 매우 거대한 흐름임을 방증한다.
- 한편, 현재 배터리 기업들의 가격을 보았을 때, 매수 가능한 기업들이 늘어났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다. 연초부터 4월 말까지 배터리 섹터 주가가 크게 상승한 이후 5월 초 기준으로는, 셀 메이커외에 매수 가능 가격대에 있는 기업들이 극히 제한적이었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퓨처엠 등 가격 부담이 컸던 양극재 기업들까지 매수 가능한 가격대에 진입했다.
- 이처럼 타겟 가능한 기업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섹터 전반적으로 악재에 둔감해지고 호재에 민감해지고 있다는 시그널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유럽 산업 가속화 법안 최대 수혜주라는 점에서 현재 가격에서는 이를 대비한 매수가 필요하다. On-site ESS 수주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셀 메이커 위주 매수와 정책 관련 수혜주 매수를 권고한다.

도표 1. KOSPI 대비 2차전지 섹터 수익률



자료: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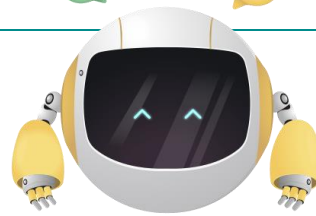
도표 2. 주요 업체 주가 추이



자료: 하나증권

Tech&Stock Weekly

2026.06.12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우주 데이터센터를 위한 우주 태양광

글로벌 전력기기/에너지

스페이스X의 큰 그림, 100만 기와 100GW

- 스페이스X의 FCC(연방통신위원회) 신청서에 따르면 저궤도에 최대 100만 기의 위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다보스포럼에서 스페이스X와 테슬라는 각각 2028년까지 100GW의 태양광 캐파 구축을 선언
- 스페이스X의 'AI Sat Mini'는 개별 위성에 대형 태양광 패널을 탑재한 위성형 데이터센터
- 현재 미국 모듈 캐파가 약 65GW임을 고려할 때 100GW는 다소 현실성이 떨어져
- 다만 우주 데이터센터의 핵심 에너지원인 우주 태양광은 밤낮의 제약이 없을 뿐 아니라 날씨의 영향도 없어 지구 태양광 대비 약5배 면적효율이 높다는 장점은 유효. 게다가 우주는 영하 270도에 가까운 진공 상태로 자연 냉각이 가능

오라클(ORCL.US): FY27년 매출 가이드نس 유지, 자금조달 계획은 확대

4QFY26년 클라우드 매출 +46% yoy, 가이드نس 부합, 시장 기대치 하회

- FY26년 4분기(5월 결산) 매출액 192억 달러로 YoY 21% 성장, 가이드نس 상단에 부합했으며, 조정 EPS 2.11 달러(+24%)는 예상치를 7% 상회. 일회성 투자이익을 제외하면 EPS는 2.03달러(+20%) 수준
- 클라우드 IaaS 매출은 AI 워크로드와 데이터베이스 수요 강세로 57.9억 달러(+93%)를 달성, 전분기(+81%) 대비 성장 속도를 높이며 시장 예상치(89%)를 상회했으나 SaaS 매출은 41.3억 달러 (+10%)로 전분기(+11%) 대비 소폭 둔화
- 전체 클라우드 매출액은 99.1억 달러(+47%)를 달성, 고정환율 (CC) 기준 성장 46%로 가이드نس 중앙값에 부합. 클라우드 성장이 전분기와 같이 가이드نس 상단 수준을 기대했으나 SaaS 매출이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전체 클라우드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

애플(AAPL.US): 애플 WWDC 2026, Gemini 기반 Siri AI와 AI 구독 수익화의 첫걸음

구글 Gemini 협업 + Siri AI 공개

- 애플이 차세대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글 Gemini 기술 기반 협업으로 개발했다고 공식 발표. 자체 LLM 단독 개발 노선에서 사실상 선회한 것
- 새 모델은 온디바이스와 Private Cloud Compute(애플도 데이터를 볼 수 없는 자체 서버) 양쪽에서 구동. 최상위 기기 전용으로 음성 이해·생성까지 가능한 2차 온디바이스 모델도 별도 탑재
- 이를 기반으로 시리를 완전히 재구축한 Siri AI 공개. 개인 맥락 이해(사진·메시지·메일 검색), 화면 인식, App Actions(말로 앱 조작), 멀티턴 대화, 전용 Siri 앱(기기 간 대화 동기화) 지원
- Visual Intelligence가 카메라·맥아이패드·비전프로 전 플랫폼으로 확장. 시스템 전반 자동 교정, 글쓰기 도구도 시리에 통합. 출시는 올해 하반기 베타. EU(iOS·iPadOS)와 중국은 규제 이슈로 초기 제외



미 국방부, 중국 첨단 민영 기업으로 규제 확대

Hana China Weekly | 2026.6.12

Analyst 백승혜 sh_baek@hanafn.com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주요 이슈 점검

테크: 미 국방부, 중국 군사 연계 제재 리스트 기업 확대

- 6/8 미국 국방부가 중국 군사 연계 기업 리스트(Section 1260H)에 중국 기업 총 188개를 지정. 이번 리스트에는 Alibaba, Baidu, BYD, WuXi AppTec, Unitree 등 약 20여 개 주요 기업이 신규로 포함되었고, YMTC, CXMT, Hesai 등 기업도 다시 포함되었음.
- 지난 2월 공개 이후 철회되었던 리스트가 재차 확대되어 발표된 만큼 이번 조치로 미중 관계 긴장이 재고조 될 가능성. 이번 규제에 금융 제재, 수출 전면 금지 등 강도 높은 규제가 예상되지는 않으나, 미 국방부와 직접 계약이 금지되고, 미국 시장 접근성 저하, 고객·투자자 컴플라이언스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또한, 2027년부터는 제3자를 통한 조달도 제한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후속 입법, 규제의 근거가 될 가능성.
- 이번 리스트 발표 이후 WuXi AppTec은 미국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 WuXi는 전 세계 4,000개 이상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고객사도 1,200개에 달해 리스트 등재가 평판과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평가. 그 외 BYD, Alibaba, Baidu 등 다수 기업도 군사 연계를 부인하고 법적·행정적 구제수단 검토 중인 것으로 추정.

메모리: CXMT와 YMTC 합산 기업가치 560조원 전망

- 6/11 WSJ 보도에 따르면 YMTC와 CXMT가 모두 상하이 커창반 상장을 추진 중인 가운데 양사 합산 기업가치는 2.5조위안(한화 약 560조원)을 상회할 전망. CXMT의 IPO 이후 예상 기업가치는 2조위안 이상, YMTC의 기업가치는 4천억위안을 목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현재 CXMT는 2026년 하반기 상장, YMTC는 2027년 중으로 예상. CXMT는 최근 5월 말 IPO 심사 통과 이후 증감회 등록 절차, 발행 일정 확정 등이 남아있음.
- 글로벌 메모리 산업 관점에서 CXMT의 HBM 양산 규모 확대에 인한 가장 큰 리스크는 '가격 교란'이 될 것으로 예상. CXMT가 HBM3 양산에 성공 시 HBM4 이하 중저가 라인업에서 가격 압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 DDR4 칩을 시장가격의 절반 수준에 공급한 바 있으며, 글로벌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한 시기를 활용해 모바일과 PC용 레거시 제품을 공격적으로 확대 중.
- CXMT는 향후 HBM3에서도 유사한 가격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TrendForce는 HBM3E와 DDR5 간 가격 격차가 좁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CXMT는 HBM3 양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월 전체 생산능력인 30만장의 20%에 해당하는 월 6만 장 웨이퍼를 HBM 생산에 재배정할 계획인 것으로 추정. 이에 따라 향후 CXMT의 DDR5 또는 LPDDR5X 공급 물량이 감소하고, HBM 공급량이 증가할 수 있음.
- 다만, 첨단 장비 규제, 글로벌 상위 기업들의 특허 장벽 등이 장애물로 작용함에 따라 CXMT의 HBM3 상용화 시점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며, 연초 예상되었던 2026년 양산 가능성은 낮은 상황.

HANA US Weekly

해외주식분석실 | 2026.6.15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A 이재은 jaeunlee@hanafn.com

엔비디아 주주 필독: 젠슨 황이 한국에 온 이유

엔비디아가 토큰 가격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이유

-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지속하며, 엔비디아가 파트너로 선정한 기업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AI 산업 확장과 함께 엔비디아의 사업 목적은 더 이상 칩 판매에만 머물지 않는다. 토큰 생산 원가가 떨어지는 속도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이다. 토큰 단가가 하락하는 속도보다 사용량이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시장 전체 지출은 커질 것이다. 엔비디아는 “사용량 증가 속도 > 단가 하락 속도”의 구조가 깨지지 않을 것이다. 토큰의 생산 원가를 세대마다 수십 배씩 낮추면서 소프트웨어를 통해 토큰을 더 많이 활용하는 새로운 사용처(AI 에이전트, 피지컬 AI 등)를 계속 만들어 낼 것이다.
- 엔비디아는 AI 산업의 토큰 생산 원가를 과거 반도체 확장기의 트랜지스터 가격처럼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 산업이 시장에 대두되면서 엔비디아가 강하게 주장한 것은 고객의 총소유비용(TCO)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보면 고객의 비용 효율성을 높여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엔비디아는 토큰을 생성하는 도구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토큰을 직접 생성하지 않는다. 토큰은 플랫폼 기업이나, AI 기업들이 만든다. 생산성이 좋아진 고객들은 더 많은 토큰을 생성할 것이다. 토큰 공급 능력이 늘어나면서 토큰 가격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여지가 있다.
- 반도체가 널리 확산될 수 있었던 근간에는 트랜지스터 가격이 내려간 덕분이다. 인텔 창업자 고든 무어의 법칙에 따르면 마이크로칩의 처리 능력은 18개월마다 2배로 늘어난다. 기본 구성요소인 칩의 가격은 18개월마다 절반으로 하락한다는 의미다. 트랜지스터의 평균 가격은 1968년 약 1달러 수준에서 2004년 약 1,000만분의 1달러 수준까지 하락했다. 트랜지스터의 가격은 매년 약 36% 수준 하락한 셈이다. 트랜지스터의 떨어진 가격 덕분에 균용으로만 쓰이던 부품은 계산기, PC, 스마트폰, 자동차 등으로 확산됐다. 매년 시장은 가격이 떨어진 폭보다 커졌다.
- 동일 성능 기준 LLM 추론 비용은 트랜지스터 가격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a16z의 2024년 11월 LLMflation 연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AI의 상식 시험에 해당하는 MMLU 벤치마크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냈던 모델은 GPT-3였다. 당시 GPT-3의 비용은 100만 토큰당 60달러였다. 2024년 기준 동일한 점수를 내는 가장 싼 인공지능 모델은 Llama 3.2 3B였다. 100만 토큰당 0.06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3년 동안 동일 성능 기준 추론 비용은 1/1,000이 된 것이다. 해마다 약 90%씩 하락한 수준이다. 트랜지스터가 매년 약 36%씩 줄어들었다면, 동일 성능 기준 AI 추론 비용은 매년 약 90%씩 떨어진 셈이다. 연간 하락 배수를 비교하면 트랜지스터가 5년 걸린 가격 하락을 동일 성능 기준 LLM 추론 비용은 약 1년 만에 달성한 것이다.
 - ※ 참고: 트랜지스터의 연간 가격 하락 배수 = $10^{(7/36)}$ = 약 1.56배/년,
 - 토큰의 연간 하락 배수 = $(1,000)^{(1/3)}$ = 10배/년
- 구글의 CEO가 언급한 월간 토큰 처리량을 감안하면 AI의 확장 속도는 매우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글에 따르면 월간 토큰 처리량은 2024년 5월 약 9.7조 개에서 2025년 5월 약 480조 개, 2025년 10월 약 1,300조 개, 2026년 5월 약 3,200조 개였다고 한다. 2년 동안 약 330배, 단순 계산하면 매년 약 18.2배씩 토큰 사용량이 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중간 관측치를 포함해 로그 변환 후 회귀해도 연 평균 성장배수는 약 19.4배다. 토큰 단가가 매년 1/10로 하락하더라도 토큰 사용량이 매년 19.4배 증가한다면 단순 계산상 토큰 지출 시장은 매년 약 1.9배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26년 6월 15일 | 글로벌 산업분석

미국

미국 건설

미국 집 한채에서 규제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규제 관련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약 30% 육박

2026년 기준 미국 신규 단독주택 분양가에서 규제 관련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6.4%로, 평균 주택가격 49만9,500달러를 기준으로 집 한 채당 13만1,734달러에 해당한다(NAHB). 이는 2021년 9만3,870달러 대비 40%, 2011년 6만5,224달러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부지개발 단계에서 용도지역 지정, 환경·교통 영향평가 등 택지비의 39.1%(집값의 9.4%)를 차지하고, 건축 단계에서는 외부 미관·자재 규정이 공사비의 17.8%(집값의 11.3%)를 차지했다. 최근 신규주택 가격 상승이 단순한 자재비 상승뿐만 아니라 각종 강화된 규제 강화와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NAHB는 이러한 규제 부담이 각종 자재비·노무비·금융비용 상승과 더불어 엔트리 레벨 주택 공급을 제약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주택공급 확대 정책 논의에서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평가한다.

진입 가능한 주택가격을 크게 끌어올림

이 같은 구조는 결국 공급 측면에서 엔트리 레벨 주택 가격을 가장 크게 압박할 수 있다. 규제비용 상당 부분이 고정비 위주이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주택일수록 그 부담 비중이 커지고, 이는 분양가 인상 여력이 제한적인 구간에서 마진 축소와 공급 위축으로 연결되기 쉽다. 홈빌더 입장에서는 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제품가격을 상향 조정하거나, 아예 공급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신규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다.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양극화

최근 미국 주택시장은 기존주택 시장의 정상화와 신규주택 시장의 구조적 제약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Realtor에 따르면, 2026년 5월 미국 주택시장에서 중간 호가는 전년대비 2.4% 하락해 7개월 연속 조정을 이어갔고, 잠정 판매량(pending)은 6개월 연속 증가했다. 반면 신규 매물은 4년 만의 최고 수준까지 늘어났다. 즉, 기존주택 시장에서는 가격 조정과 매물 증가가 거래 회복의 초입에 들어서 있지만, 신규주택 시장은 NAHB가 지적한 규제비용의 부담 때문에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결국 2026년 미국 주택시장은 기존주택 시장의 가격 정상화가 진행됨과 동시에 신규 주택시장은 높은 규제·건축·금융 비용으로 인해 공급 제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Analyst 하민호 minhoha@hanafn.com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6/15	322,5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삼성SDI (006400.KS)	6/15	539,0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센터향 BBU/ESS 증가와 유럽 EV 배터리 증가로 실적 개선 기대 StarPlus Energy를 활용한 현지 생산, LFP 라인 전환을 통해 미국 내 공급망 경쟁력 강화
대한항공 (003490.KS)	6/15	26,6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물운임,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등해 유가 상승의 부담을 상당히 상쇄 2026년 12월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마무리할 예정. 합병 이후 실적 개선 기대
대덕전자 (353200.KS)	6/15	165,2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서버향 MLB와 메모리 패키지 기판 수요 증가로 고부가 반도체 기판 매출 확대 기대 FC-BGA 가동을 회복과 자율주행·AI향 신규 수요 진입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HD건설기계 (267270.KS)	6/15	142,6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HD현대인프라코어 합병 이후 사업 통합 시너지가 본격화되며 외형과 수익성 동반 개선 인프라 투자, 선진시장 수요 회복, 산업·방산용 엔진 성장으로 중장기 이익 체력 강화
오리온 (271560.KS)	6/15	135,5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베트남·러시아 매출 큰 폭으로 성장하며 해외 법인 중심의 실적 개선세 뚜렷 중국에서 고성장 중인 간식 및 온라인 채널에서의 보폭 확대 고무적
한국콜마 (161890.KS)	6/15	86,4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디 브랜드의 글로벌 수출 확대, 선풍기·스킨케어 주문 증가로 ODM 본업 성장성 강화 국내 법인 고성장과 고마진 제품 믹스 개선을 바탕으로 실적 개선 기대
SGC에너지 (005090.KS)	6/15	58,4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전·건설 부문 수익성 개선과 SMP 상승, REC 판매 확대가 맞물리며 영업이익 회복세 친환경 발전과 AI 데이터센터용 전력 인프라 확장으로 중장기 성장 모멘텀 확보
테스 (095610.KQ)	6/15	182,2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모리 투자 확대와 NAND 투자 재개 기대가 전공정 장비 수요 회복으로 연결 핵심 장비 경쟁력을 기반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설비투자 확대 시 수혜 가능
에치에프알 (230240.KQ)	6/15	26,4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월 미국 AWS-3 재경매를 시작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주파수 경매 예정 AT&T의 CAPEX 확대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퇴출에 따른 북미 통신장비 투자 수혜 기대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Last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0.53%	+0.09%p	+80.51%	+8.14%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증가기준 -10%선 적용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생명 (032830.KS)	6/15	385,5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 판매 확대와 신계약 CSM 증가로 보험 본업의 이익 체력 개선 삼성전자 배당수익 및 자회사 연결 손익 증가로 투자손익 크게 개선
신세계 (004170.KS)	6/15	695,0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화점 본업의 외국인 매출 확대와 리뉴얼·팝업 효과로 매출 및 영업이익 개선 흐름 지속 면세점 흑자 전환과 신세계인터내셔널 등 자회사 수익성 회복으로 실적 개선 가시성 상승
오리온 (271560.KS)	6/15	135,5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베트남·러시아 매출 큰 폭으로 성장하며 해외 법인 중심의 실적 개선세 뚜렷 중국에서 고성장 중인 간식 및 온라인 채널에서의 보폭 확대 고무적
테스 (095610.KQ)	6/15	182,2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모리 투자 확대와 NAND 투자 재개 기대가 전공정 장비 수요 회복으로 연결 핵심 장비 경쟁력을 기반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설비투자 확대 시 수혜 가능
삼성전기 (009150.KS)	5/26	1,340,000	1,714,000	27.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서버 랙 전력밀도 상승과 800VDC 전력 인프라 도입으로 서버용 MLCC 탑재량 증가 타이트한 수급과 가격 조건 개선이 하반기 실적 레버리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OCI홀딩스 (010060.KS)	4/20	267,500	300,000	1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페이스X와 다년 공급계약 협의 보도로 우주데이터센터향 신규 수요처 확보 기대감 상승 폴리실리콘 CAPA 증설 계획 구체화/가속화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 기대
SK하이닉스 (000660.KS)	4/13	1,027,000	2,150,000	109.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1Q26 Preview 매출액 53조원(YoY +203.0%), 영업이익 37조원(YoY +395.0%) 전망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삼성전자 (005930.KS)	4/1	167,200	322,500	92.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POSCO홀딩스 (005490.KS)	4/1	332,500	377,000	13.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1Q26부터 대수리 영향 해소와 자회사 실적 개선으로 안정적 수익성 회복 전망 수입산 철강 규제·중국 생산 규제 수혜로 철강 부문 스프레드 확대 기대
LG이노텍 (011070.KS)	4/1	293,500	1,036,000	252.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환율 + 롱테일효과 + 기판 수요 호조로 2Q26 호실적 기대감 존재 전장 및 서버용 FCBGA 가동률 상승에 따른 가파른 실적 개선 전망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2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28.44%	-22.30%p	+51.85%	-20.52%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A반도체 (395160)	2026.02.27	29,560	49,420	6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KS)	2026.02.24	15,160	12,950	-1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에셋플러스 코리아 대장장이액티브 (442090.KS)	2026.02.24	25,365	36,800	4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방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 부품, 장비, 소재 등 후방 산업(소부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장장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반도체, 방산,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 밸류체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을 선별 편입. 국내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려 시장 지수 대비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대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18,635	4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609.45	7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드언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전력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SPHQ (미국 대형 쉐어주)	2026.03.23	75.80	86.44	1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XLE (미국 에너지)	2026.01.02	45.65	57.12	2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S&P500 에너지 업종 ETF. 에너지 섹터의 대형주 20여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ExxonMobil과 Chevron의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구성 트럼프 정부의 중남미 영향력 확장 시도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권 개입 상황이 미국 대표 원유 관련 기업들의 이익 증가 및 자산 회복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 유가 모멘텀은 제한되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개별 요인 주목
MADE (미국 제조업 기업)	2025.10.27	30.66	37.35	2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매출비중 조건 반영. 중대형 제조업, 제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ETF 관세 구조와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에 초점. 상호관세는 협상 여지가 있는 반면, 품목관세는 협상 가능성이 낮아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공급망의 리쇼어링 현상 확대 전망. 정책 수혜 및 내수 익스포저 기반의 수혜 기대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6.14	6.15	6.16	6.17	6.18	6.19	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NAHB주택시장지수 (E 36, 이전치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5월 수출 물가 지수 (E --, 이전치 7.1%) 한국 5월 수입 물가 지수 (E --, 이전치 -2.3%) 일본 6월 기준금리 결정 (E 1.0%, 이전치 0.75%) 중국 5월 광공업생산 (E 4.3%, 이전치 4.1%) 중국 5월 실업률 (E 5.2%, 이전치 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5월 수출 (E --, 이전치 14.8%) 일본 5월 수입 (E --, 이전치 9.7%) 유로존 5월 CPI F (E --, 이전치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6월 기준금리 결정 (E 3.75%, 이전치 3.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5월 PPI (E --, 이전치 6.9%) 일본 5월 CPI (E 1.5%, 이전치 1.4%) 	
6.21	6.22	6.23	6.24	6.25	6.26	6.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로존 6월 소비자지대P (E --, 이전치 -1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6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4.5) 미국 6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0.0) 미국 6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5.1) 미국 6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5월 신규주택매매 (E --, 이전치 -6.2%) 미국 5월 건축허가 F (E --, 이전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5월 PCE (E --, 이전치 3.8%) 미국 5월 근원 PCE (E --, 이전치 3.3%) 미국 5월 내구재 주문 P (E --, 이전치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5월 공작기계 수출 (E --, 이전치 37.4%) 미국 6월 미시건대 소비 자심리지수 (E --, 이전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5월 산업생산 (E --, 이전치 24.7%)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